

Schedule의 특정부분이 makespan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글로벌한 해를 찾아내는 S/W 개발

소원섭, 정재학*, 박진수, 김민수

영남대학교

(jhjung@yumail.ac.kr*)

현재 scheduling에 대한 연구는 최적해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. 하지만 최적해를 찾았다고 해서 그 해가 모든 제약조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최적해의 각 부분이 makespan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. 이로 인해서 최적해가 실제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. 하지만 이론적인 해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. 본 연구에서는 schedule의 특정부분이 makespan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schedule에서 가장 중요시 고려해야할 부분을 찾아내고 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글로벌한 해를 제시할 수 있는 S/W를 개발하였다.